



# 식탁의 자유

글|홍은희(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며칠** 전 한 모임에 연사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한국 언론과 바  
 랍직한 관계 맺기'에 대해 말해달라는 주최측의 주문을 받  
 아서였다. 명사급에 속하는 주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며 네트워크를 형성  
 해 협력해 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었다는 '한국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은근히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난 3월부터 매주 한 차례 열리는데 그간 한국의 도예를 비롯한 전통문화도 익히고, 사회생활의  
 기본처럼 된 폭탄주도 체험하면서 한국의 이모저모를 함께 나누었다고 했다. 정례적인 만남을 계속  
 해온 까닭인지 참석자들 간에 제법 친숙한 분위기도 감돌았다.

'과연!' 나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한다  
 는 것이 쉽지 않을 터. 더구나 잠시 지나가는 객으로 한국의 풍물을 즐기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터로 한국에 동지를 틀었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를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한국통' 프로그램이 어  
 찌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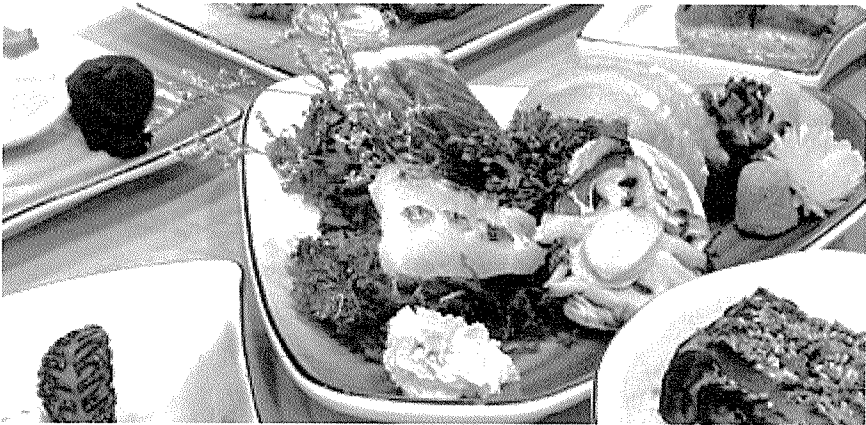
이득은 외국인들만 보는 것은 아니었다. 열손가락 근처를 맴도는 경제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  
 는 우리나라이고 보면 누구든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글로벌 전략'이 필요할 터. 그





러니 외국과의 고리를 더하고 싶은 한국인들에게도 갈증 해소책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윈-윈이 아닐 수 없었다.

앞서가는 착안에 감탄을 금치 못한 것도 잠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뒤늦게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처음 참석해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프랑스인이 주최측이 제공한 저녁식사를 고스란히 남기는 것이 아닌가. 두 달전 한국에 왔다는 이 사람은 나에게 자랑스레 젓가락질 시범도 해보였던 만큼, 분명 포크와 나이프의 문제는 아니었다.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프로그램 내내 그로 하여금 허기와 싸우게 만든 주범은 바로 식단이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편안한 만남을 도모하는 협력의 차원에 불행하게도 '식탁의 자유'가 빠져있었던 것이다.



이날 제공된 식사의 메뉴는 생선초밥과 야채튀김, 계란말이와 된장국이었다. 생선회는 물론, 육회나 생간에 이르기까지 가리는 것 없이 식성 좋은 나로서는 '깨 눈 감추듯' 먹어치울 정도로 입이 벌어지는 식단이었지만, 그 가여운 프랑스인에게는 아니었다. 그 사람은 생선을 날 것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그곳에 참가한 이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간혹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가운데 날 생선을 먹지 못해 통째로 끼니를 굶는 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최측의 무신경함이 더욱 놀라웠다. 하기야 회를 못 먹는 사람이 외국인 뿐이겠는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이런저런 사람 가운데서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바라보는 생선이 무서워 회라면 질겁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날 것을 즐겨 먹던 나와는 달리 직장에 들어와서 선배 덕분에 처음으로 회를 먹어봤다던 후배들의 고백을 놀라움 속에 받아들였던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르며 우리의 식탁문화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따져보면 우리의 식탁문화는 지극히 획일적이다. 여럿이 음식점을 찾았을 때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궁리하다가도 정작 누군가가 한 음식을 선택하면 '나도' '나도' 하고 뒤따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네 식탁문화이다. 그러기에 메뉴를 정하고 나서 우스개처럼 "메뉴만큼 통일이 잘된다면 우리나라가 무엇이 어려울까"하고 슬쩍 군말을 붙이곤 하지 않는가. 이런 식탁문화인지만의 하나 제각기 다른 음식을 주문이라도 하려 하면 음식점 종업원의 눈치부터 살피기까지 한다. 이런 문화에 오래 길들어 온 탓에 하루가 멀다하게 크고 작은 모임이 줄을 잇는 요즘도 성대하고 화려한 치장에만 심혈을 기울일 뿐, '선택이 가능한 식단'은 아예 간과 해버리기 십상이다.

식탁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먹는 것처럼 각자의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까다로운 게 없다. 요즘 같이 건강이 '화두'인 시대에서는 더욱 식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평소 건강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는 물론이요, 지병을 앓고 있어 의사나 영양사의 권유로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만찬 모임이나 오찬모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건강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에게 스테이크 식단을 제공한다면, 초청은 하였으되 굵으라는 것이나 진배 없다.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육류는 기피하는 이라면 제 아무리 일류 주방장의 멋들어진 솜씨로 조리해 낸 초일류 스테이크라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근래 외국에서는 현대인의 복잡한 식습관을 배려해 만찬장에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외신보도를 읽은 기억이 있다. 모처럼 근사한 만찬에 초대받고 갔다가 포식은커녕 기피식단이 제공되는 바람에 쫓졸 굶어야 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기는커녕 불쾌한 기억만 안고 돌아가기 십상이다.

우리 생활에서 '식탁의 자유'는 너무 멀리 있다. 커다란 밥상에 온 식구가 빙 둘러앉아 식사하던 우리의 식탁문화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식을 은연중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키우는 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작은 실천들이 중요한 이유이다. †

